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성 반정모

장흥 김홍필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2018년 2월 8일 목요일

광양시, 기업과 함께 전통

시장 방문해 민생현장 쟁겨

포스코 광양제철소·광양상공회의소 등 임직원 참여 상인들 격려



광양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기업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현장을 쟁기는 소통행보에 나섰다.

그동안 시는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취지로 매년 설과 추석에 전통시장을 방문해 왔었으며, 올해도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를 이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친체된 실물경제에 힘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추진했다.

정현복 시장은 6일 광양5일시장을 시작으로 9일까지 광양시장, 중미시장, 옥곡5일시장을 차례로 방문

정현복 시장은 “요즘 불경기다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인들의 활기찬 표정에서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과 포근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오늘 작은 정성과 따뜻한 격려가 상인들에게 힘이 되어 전통시장이 활기차게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학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역의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돋는다 광양시와 둘 함께 하고 있다”며 “이번 설에도 지역 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 베푸는 넉넉함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시장고유의 특색을 살린 골목형시장 등 독특하고 참신한 시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시설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까지 시설증기축, 주차장 조성, 시장 환경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한 불 인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시장 안전 진단도 실시하고 있다.

광양=김충권 기자

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광양제철소와 주파트너사협회, 광양산업입주기업체, 신금산단협의회,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 등 소속 임원 100여 명이 참가 한다.

첫날인 6일 광양5일시장을 방문한 정현복 광양시장, 김학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 임원 40여 명은 운동리 상품권으로 직접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소프트웨어 플랫폼 육성과정’ 교육생 모집

오는 13일까지



순천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KAIST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 플랫폼 4.0 구축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교육생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4.0은 정보통신 기술(ICT)이 제조업에 결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 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해 ▶ 개인 맞춤형 제조 ▶ 유연생산 ▶ 효율생산을 통해 글로벌 경쟁 대응등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사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은 노동력 감소, 고령화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중소제조업의 지동생산체계를 구축하였고, 산업현장에 공급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순천시도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4.0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2022년까지 지능형 자동화 생산공장을 넘어 순천시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구축해 나갈 계획

이다.

현실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기술력을 보유한 KAIST와 4.0 플랫폼 구축 MOU를 체결하였으며, 올 해 4.0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용역 추진과 함께 산업현장에 공급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디자인, 혁신문제 발굴을 위한 인턴십,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활용역량 강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16주에 걸쳐 순천시청 전산교육장과 KAIST, 기업 현장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천=김종영 기자

화순군, 천사관 영화 사랑방 개관

나주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빛가람동서 나주배·한라봉·제수용품 등 15여개 품목 판매



나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7일부터 9일까지 3일 간 빛가람동 일원에서 ‘2018년 설맞이 나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빛가람동 196-2번지(한전·한전KDN사), 예기립타워 옆에서 펼쳐지는 이번

직판행사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농·특산물 15여종을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직거래장터에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 배즙, 한라봉, 아로니아 등을 비롯해 잡곡과 곶감 등 제수용품과 나주축협의 한우, 삼겹살 등 축

산물을 시중 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샘플 쌀 1kg을 증정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소비자는 신선하고 건강한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생산농가와 업체는 안정된 판로확보에 따른 소득증대로 모두가 풍성한 명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하여 직거래 판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서도 지난 2일부터 설날 연휴 전날인

15일까지 설맞이 특판전을 운영중이다.

소비자 편의에 맞춰 나주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오색마을’(www.fivecolor.ox.kr)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소해 줄 대안 공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천사관 영화 사랑방은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에 정기적으로 열린다.

오는 28일에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전쟁액션대작 ‘명량’, 3월 28일 시인 윤동주와 송몽규의 이야기를 다룬 ‘동주’ 등 주목같은 작품들이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천사관 영화 사랑방은 정기상영 뿐 아니라 상영회망일 최소 1주일 전 10명 이상이 단체 관람을 신청하면 상시 관람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천사관(061-379-5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 기자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

건강한 먹거리의 시작,

화순에서 힐링을 맛보세요!